

“유전자조작 농작물 개발 중단을”

전북시민단체연합, 농진청 GM벼 상용화 반대 도민행동 준비위 발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이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GM) 농작물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은 29일 농촌진흥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GM) 벼와 농작물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7일 (가칭)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북역

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이 지난 해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에서 GM 농작물을 대대적으로 시험재배하고 있다”며 “전북 농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GM 농작물 재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농진청이 GM작물의 위해성검사를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에 시험재배를 승인한 품목은 벼와 사과, 콩 등 7개 작물로, 재배면적은 115개 시험포장에 20만6713㎡(20ha)에 달한다”며 “농도 전북이 유전자조작 농작물 개발과 확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농진청은 위해성검사를 위한 시험재배에도 2015년 현재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 170여종에 대한 GMO 연구를 진행, 2020년까지 20여 품목에 200여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GM 반대 준비위원회는 “미국에서 1996년 상업화된 유전자조작 농작물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 연구기관에

서는 장기 손상과 수명단축, 알레르기, 불임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량생산과 경제성만 앞세워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전자를 변형한 GM 농작물을 개발할 경우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진청에서 GM 작물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GM 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최대 곡창지대 호남평야가 유전자조작 쌀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일방적인 구조조정 멈춰.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도방 업주 무차별 폭행 조폭 일당 검거

영역 침범 이유로 집단 폭행·전치 6개월 중상

자신들의 구역에서 허가 없이 보도방(노래방 도우미)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자신들의 유희주점 보도방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신규 보도방 사업주 A(38)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박모(26)씨를 구속하고, 이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주시 유아동 한 유희주점 주차장에서 A(38)씨를 둔기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집단폭행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유아동에서 유희주점과 보도방을 운영한 박씨 일당은 자신들의 관리구역에 신규 보도방을 낸 A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우리가 장사

하는 구역에 허락도 없이 보도방을 개설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폭력배 일당의 보도방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전주시 중화산동과 아중리 일대 유희주점에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아 행진 혐의(상매매 알선등해위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보도방연합회 조직 일당을 붙잡아 조직폭력배 심모(3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진수 기자

선수 폭행 고교 야구감독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9일 야구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한 고등학교 야구감독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저녁 9시30분께 전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는 B(15)군의 머리를 플라스틱 컵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고속도로순찰 제9지구대 새벽시간 음주운전 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9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고속도로 동접주 톨게이트 등 6개소에서 음주운전 기습 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등 음주운전 단속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이날 2명의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를 당했고, 벌금수배자 1명을 검거했다.

방홍 대장은 “새벽시간 등 불규칙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권혁동 공개수배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 권혁동(33·사진)을 공개수배했다.

이날 경찰이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 속의 권씨는 키 174cm에 몸무게



68kg의 마른 체격이며, 피부는 검은 편이다. 도주당시 흰 반팔티에 회색 집업 자켓, 짙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권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1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권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수사에 집중, 권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안진수 기자

전주육아지원센터 장난감대여사업 호평

매월 선착순 회원 80명 모집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가정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복나눔 장난감대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복나눔 장난감대여실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매월 선착순 80명 회원을 모집한다.

올해 회원 접수기간은 매월 1일(공휴일일 경우 익일)부터이며, 접수시간

은 10시부터 17시까지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접수 장소는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나눔 장난감대여실이며, 회원 등록시에는 1년간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

회원자격은 취학 전 아동(만5세)을 둔 전주시 거주자 또는 전주시 거주자가 아니라도 관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다. 연회비는 2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및 부모,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다문화, 차상위 계층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해피하우스, 주택 설계 방문상담

전주시건축사협회 재능기부

전주시가 전주시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고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향상에 나섰다.

전주시해피하우스센터는 전주시 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건축사 주택설계 및 건축전반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진 해피하우스 무료상담 서비스는 지난 15일 이후 해피하우스센터로 시작으로 22일 노송 해피하우스센터, 5월 4일 완산 해피하우스센터, 11일 팔복 해피하우스센터에서 각각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무료상담에는 전주시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가 해피하우스 사업지역 내 단독주택 신청과 증축, 리모델링, 유지관리 등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상담을 통해 건축신고 규모에 신속(연면적 100㎡ 이하)과 증축(연면적 88㎡이하)을 희망하는 주택에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